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 Matthew 11:28-30 ]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흥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운실사모(1부,새벽) 김은화 이화니(2부)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 열방을 섬기는 이들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5.14.2023

참된 삶의 예배자

1부 9:00 AM 2부 11:00 AM

LIVE

# 주 일 예배

##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참회의 기도	시편 Psalm 32:5
찬송	찬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같이
기도	오귀록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찬송	찬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Romans 12:1-15 NT p 256
말씀	<b>참된 삶의 예배자</b> / 김성직 목사
Sermon	True Worshippers of Life
*결단의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례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 안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동급으로 예우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기도 하고 한 분이기도 하다?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이 교리는 분명 '곧치 아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법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봤던 마태복음 본문입니다.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의 이름인 듯이 써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보기에 세 분이지만, 분명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주님은 세례 명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2) 사도행전 5:3-4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부부가 받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만 바쳤습니다. 이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친 헌금이 받을 팔고 받은 돈 전부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온 교회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는 성령님을 속였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 했다가보다, 하나님께 했다."

성령님을 속였다고 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곧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21)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제 15과 성령님을 믿습니다

로마서 8:9

\* 들어가면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 한숨부터 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방언이나 초자연적인 현상들하고 결부시키지는 않나요?

이제 사도신경의 제3부로 넘어 왔습니다. 3부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부활, 영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뭣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음가는 서

열 3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짙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성령님 오해’ 증세는 사실 2천년 교회 역사에서 보이는 증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오해, 새로운 이단이란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미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하나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려 합니다.

- 1)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 2)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 3)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1.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에 대한 오해가 성령님에 대한 다른 모든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무슨 물건인 듯이, 자기가 던져 주기라도 하는 양 말합니다.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으로 그분을 호칭하기로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예수’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 공경하고 두려워하기에 ‘예수님’이라 부르듯이 ‘성령’으로 부르기보다 ‘성령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

#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아버지 주일 Parent's Sunday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버지께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같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참된 삶의 예배자, 롬 12:1-15

### <본문 속으로>

1. 우리가 지금 주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1절)
2.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절)
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무엇이 되었나요? (5절)
4.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3절)

## SATURDAY

###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SUNDAY

###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

### 함께 기도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고관절 재수술과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백영희집사님: Allison 턱수술 후 잘 회복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MONDAY

###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 TUESDAY

###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 WEDNESDAY

###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 THURSDAY

###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FRIDAY

###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 <생활 속으로>

1. 참된 삶의 예배자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 연결되어,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답게 옆에 있는 내 사람부터 제대로 사랑하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나하고 늘상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때론 그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기도 하는 바로 내 사람부터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2. 참된 삶의 예배자는,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관 있는 지체로서, 믿음의 선을 지키고,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영적으로 공감하는, 이 세대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과연 다른 지체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믿음의 선은 지키는지,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는지, 함께 영적으로 공감하는지, 돌아보세요.

## 소망소식

### 예배를 섬기는 이들

5/14		5/21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대표 기도	윤순기 장로
교회 안내	안연실 집사	교회 안내	야외 예배
번역	김예람 자매	번역	야외 예배
애찬 담당	칠레 구역	애찬 담당	2조 /청년부,교역자(뒷정리)
교회 청소	도미니카 구역 (5월)	교회 청소	도미니카 구역 (5월)

### 향기로운 예물 5/7/2023

주일	\$1,079	구역선교	\$200	주일학교/유스	\$11
십일조	\$5,198	첫열매	\$258.10	전시회 후원금	\$300
감사	\$510	방송문서부	\$100	예배부 키보드	\$300
선교	\$20			청년부 후원금	\$100
건축	\$120			헌금총액	\$8,196.10

### 헌금 외 수입금

Hope Café 수입금 \$70

합계 \$70  
입금총액 \$8,266.10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 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5월 행사 안내

5월 14일 (주) Mother's Day

5월 21일 (주)

전교인 야외예배 at Love Park

2239 Mason Ln.,

St. Louis, MO 63021 (Mary Shelter)

예배시간: 오전 11시

###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Gerry Friton 성도님

고 김기봉장로님께서 지난 5월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일정은 오늘 5PM에 천국환송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내일 월요일 오전에는 발인과 하관예배를 가족장으로 일리노이 쉐넬힐에서 드립니다

**기도구역** 도미니카 구역(윤순화 장로 정미자 집사)과 이광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가정** 오귀록 (임희남 권사) 장로님 가정 위해서 - 요셉 가정이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지며, 새 사업장소 이전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

### 교회행사

2월 5일 (주)  
~5월 28일 (주)  
‘로마서 성경필사’

5월 14일 (주)  
Mother's Day

5월 21일 (주)  
전교인 야외예배  
Love Park